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새와 매미

왕새매(방언명: 다카) 학명: *Butastur indicus*

한로(寒露)라고 하는 10 월 초순 무렵부터 날아오는 매의 한 종류입니다. 봄부터 여름에 걸쳐 혼슈에서 번식하며,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동남아시아 등지로 건너갑니다. 게라마 제도는 중간에 거쳐가는 지점이지만 그중에는 겨울을 나는 개체도 있습니다. 몸길이 약 50cm 로서 날개를 펴면 1m 를 넘습니다. ‘깝 끼이’ 하고 높은 소리로 울며 나는 모습은 게라마 제도에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. 옛날 섬 아이들로부터 ‘진미’(게라마 제도에서 말하는 왕새매의 울음소리)라고 불리며 친숙해진 새입니다.

호반새(방언명: 고카루) 학명: *Halcyon coromanda*

4 월 무렵, 번식을 위해 게라마 제도로 날아옵니다. ‘호로롱호로롱’ 하는 특징적인 울음소리가 어둑어둑한 골짜기를 따라 존재하는 숲속에서 아침저녁으로 특히 잘 들립니다. 몸길이 약 30cm 로서 몸에 비해 크고 선명한 빨간색의 부리가 있으며, 몸 위쪽은 적갈색, 등에 짙은 자주색 광택이 있습니다. 몸 아래쪽은 주황색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새입니다. 숲에 울리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는 장마철의 시작을 알립니다.

류큐아부라매미 학명: *Graptopsaltria bimaculata*

마을 근처에서 6 월 무렵 울기 시작해 ‘지리지리지리지—’ 하고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. 아마미 제도부터 오키나와 본섬 주변에 분포하며 류큐 열도의 고유종입니다. 몸길이 약 5cm 로서 날개 색은 조금 밝은 갈색입니다. 사람이 가까이 가면 울음을 멈추고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매미일 수도 있습니다.

구로이와쓰쿠쓰쿠 학명: *Meimuna kuroiwae*

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여름의 끝무렵 ‘지—와지—와’ 하고 울기 시작해 가을이 찾아왔음을 느끼게 합니다. 가고시마현 사타미사키곶에서 오키나와 본섬 주변에 걸쳐 분포하며 몸길이 약 3.5cm 정도로서 다른 매미에 비해 가는 체형입니다. 날개는 투명하고 등의 어두운 황록색 반점 무늬가 특징적입니다. 다가가도 울기를 멈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.

말매미 학명: *Cryptotympana facialis*

6 월 중순경 마을 등에서 주로 오전에 ‘샤아샤아’ 하고 큰 소리로 울며 장마의 시작을 알립니다. 이전에는 서일본 이남이 주요 서식지였지만, 점차 북상하여 간토 지방에까지 분포하게 되었습니다. 몸길이 약 6~7cm 로서 일본산 매미 가운데 야에야마말매미에

뒤이어 가장 큰 종으로서 광택이 강한 검고 큰 몸에 투명한 날개가 있습니다.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으므로 가까이에서 관찰하기가 쉬운 매미입니다.